

화학기업과 “환경 파트너십” 구축

울산시, 공장장 초청 환경시책 설명 ... 자율환경관리협약 내실화 다짐

울산시가 4월28일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박맹우 시장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의 환경 관리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기업 공장장 초청 환경시책 설명회>를 열었다.

울산시는 설명회에서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최근 생태도시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데 이어 5월에는 <Ecopolis 울산계획> 최종 보고회를 갖고 생태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환경콘서트 개최 등을 거쳐 6월5일 환경의 날에 <생태도시 울산>을 선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사전 예측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체 및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1기업 1하천 살리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과 행정의 상호 신뢰 아래 추진중인 <자율환경관리협약>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뒤에는 2003년 환경투자 우수기업인 동서석유화학(대표 이균철), 한화석유화학 2공장(공장장 김대식), 한국BASF 화성공장(공장장 진두환),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대표 성두용), SK(부사장 방엽성) 등 5개 기업에 울산시장의 감사패가 수여됐다.

<화학저널 2004/04/29>